

영원한 투자

빌립보서 3:12-14

김철연 목사님

소중한 주일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을 부족한 사람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지만, 교회마다 느낌이 다르다. 참사랑교회에 오면 밖에서부터 일단,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 예배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예배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 예배가 참 멋있다. 한 가지 더 멋있는 것이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있게 우리 교단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 최정웅 목사님이라고 자랑한다. (웃음) 나는 헛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다. (웃음) 집사람이 나를 보고 말 좀 아끼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정직해서 헛소리를 못 한다. 나는 정말 최목사님을 존경한다. 멋있는 분이고, 닥고 싶은 분이다. 자랑을 참 많이 하는 목사님이 중요한 시기에 총회장이 되었다. 꼭 되셔야 할 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에서 참 중요한 교단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마귀가 가만 두지 않는다. 교단 안에서도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특히 여러분의 합심기도가 필요하다.

1. 지금이 곧 기회다.

(1)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나는 70 평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서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기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 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삶이다. 아무 것도 문제 삼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자. 보너스 인생에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나.’ 그렇게 하는데도 얼마 지나면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이며 무한한 기회다. 여러분, 숨을 멈춘 사람에게 기회가 있겠는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꿈과 설계도가 있어도 숨이 멈추는 순간 기회가 없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다. 뒤로 미루지 마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다.

(2)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한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전도자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장인이런이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내외분이 파나마 집회에 도착하자마자 그 연락이 와서 바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 신학교에 다니는 아드님이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위한 가족 대표로 참석하고 내용을 카톡으로 아버지에게 보냈다.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 나에게 보내줬는데, 나도 읽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멀리 파나마까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까지 하셨는데,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것이 전도자의 심정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다.

1.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1) 바울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 전부를 투자했다.

오늘 14절 말씀에,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명령, 천명을 목표로 삼고 달려갔다. 천명을 목표로 삼고 자기의 생을 드려서 순교했다. 그의 인생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전력질주하는 삶이었다. 삶을 송두리째 드려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이었다. 그에게는 일심, 전심, 지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하다. 삶 자체가 절대목표, 절대사명, 절대헌신이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 순교로 마감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다. 그것이 영원한 투자였다.

(2) 결산의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여러분, 시한부인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율령급 금메달이 얼마나 값진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상급으로 계산이 되겠는가? 아니다. 노벨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것이 상급으로 교환이 되겠는가?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교환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니지 않나?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

다. 최고의 성공의 자리다.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받을 수 있나? 어렵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성공인 대통령직과도 바꿀 수 없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다. 그 영광스러운 대통령직이 지옥에서 의미가 있겠는가? 금메달이, 노벨상이, 지옥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성공과 명예로운 상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물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값진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금메달로 대통령으로 노벨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린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날에 상급으로 보상받을 영원한 투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투자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유행도 상도 꿈도 육신적인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되려는 천명목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송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날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 되겠는가. 감격스러운 날이 되겠는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순간이 되겠는가.

(3)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골로새서 3:1-2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회망하고 요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지상의 것이 아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지옥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무슨 지상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는가. 지옥에 가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 세상의 성공? 우리는 그 이상이 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우리는 그 이상이 있다. 무엇을 가져야 하겠는가. 여러분,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재벌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들이 지옥에 가서 재벌이었던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후회하겠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죽은 사람에게서는 기회가 없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가진 것이며 무엇이 잃은 것이며 무엇이 없는 것인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금메달로도 노벨상으로도 대통령직으로도 재벌의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성공관이 바뀌어야 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비전과 드림과 인생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처럼, 지옥을 향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야 하겠는가.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4) 반드시 상급이 있다.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투자라고 지었다. 나의 달려갈 길, 숨 멈추는 순간에,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모든 것이 nothing이구나’ 하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겠다고 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배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겸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까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급을 받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쉽겠는가. 우리가 백 년을 산다 해도, 영원한 내세를 비교해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우리의 본론은 그 날에 가서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서론 중의 서론을 살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만난 훌륭한 멋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지만, 한 분만 내가 소개하겠다. 내가 1980년 6월 12일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 전에는 신부산교회 부목사로 있었다. 교인들이 3백여 명 되었다.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인이 천 명이 넘는 부산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불국사도 몇 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그보다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서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지었다. 믿음의 사람 몇 명이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광안리 해수욕장 앞의 집 한 채가 500만 원 할 때였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전제산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신불로 헌금을 드렸다. 예배당이 잘 올라갔는데, 제정이 바닷나서 마무리가 안 되게 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번에는 자기 공장의 직원들을 데리고 교회로 출근해서, 페인트 공장을 하는 분이니까 자기 페인트로 마무리를 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쏟아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기념품을 만들었다. 순금 버클을 만들었다. 매일 옷 입을 때마다 만지게 되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

나눔의 축복이라고 기억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 성공하면 ‘역시 내가 펜 찡구나’ 생각한다. 이분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미국으로 오게 될 때 이분이 나를 초청해서 양산에 데리고 갔다.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소개했다. “제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갔다 했는데, 이분이 그만 그 귀한 순금 버클을 화장실에 떨어뜨려 버렸다. 옛날 화장실 아닌가. 그래도 그것을 차마 버릴 수 없으니까, 신문지로 싸서 꺼내가지고는 몇 번을 씻어서 건져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은 것이다. ‘아,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이라도 똥통에 떨어져 버리면 만질 수 없는 물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쓰면 아무 가치 없는 똥덩어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치있게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분이 부산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제일 돈이 많은 회장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강권해 왔다.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골프장을 지을 땅이 그 땅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팔겠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몸이 달아서, ‘그러면 부산 서면에 있는 호텔과 바쿠자고 한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장로님과 후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호텔이다. 나는 귀국해서 부인과 함께 그 호텔에서 묵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참 많다.

나는 확신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이 물질을 주어서, 후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이 일을 할 예배당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를 찾고 계신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무리 땅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탈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인간적으로 쏠리지 않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참사랑교회의 귀한 중직자,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3.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내 간증을 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몇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

(1)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

나는 근심,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 완벽주의자여서 한 번도 만족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늘 편치 못했다. 얼굴도 마음도 편치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저는 잘 하고 싶는데 능력이 없으니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 힘도 없는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왜 능력 없는 네가 날마다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날 나는 평평 울었다. “정말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VIP, 귀빈으로 모셨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시다. 내가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교회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올 때마다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울면서 신실하게 고백했다. “주여,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나는 조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24시간 운전하라고 피곤해 빠져 있었는데, 나는 이제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강 같은 평화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 후에 내가 문제가 없었는가?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부대끼지를 않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게 자유함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자유가 있다. 자유가 없으면 평안함이 없다. 자유가 생기니까 평안이 왔다. 어떤 사건이 와도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 자녀도 부인도 교회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왔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진정으로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시달리고 살아갈까.

(2)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또 한 가지는, 늘 나는 교인들을 보면서, 중직자를 보면서, ‘왜 중직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무슨 집사냐. 집사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네 입장에서 질문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 남편이 왜 이래? 부모가 왜 이래? 자식이 왜 이래? 질문이 잘못되었으니까 갈등이 계속된다.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를 질문한다.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경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가정에 계속 있어야 합니까. 왜 내 앞의 장애물을 거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라. 하나님은 간단히 대답하실 것이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사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본 사람이었다. 당대 최고의 히브리 학자였고 혈통으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게 절멸을, 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질문을 바꿔라. ‘누구누구는 왜 이래.’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 보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것뿐이다.

(3) 맞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라.

또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네가 맨날 너의 아내에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열 정탐꾼의 고백이야.” 열 정탐꾼은 정직한 고백을 했다. 그런데 그 열 정탐꾼의 정직한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부부끼리 거짓

말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진실한 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 (웃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지만 “여보,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거야.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사실인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 (웃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있으면 싸움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부부 사이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맨날 맞는 말만 한다. 열 정탐꾼의 말이다. 문제만 만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했는가? ‘네 백성을 젃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으로 갔다. “과연 이 풍성한 포도넝쿨을 보니 젃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것을 보면 알 것 아니냐.” 우리는 마귀에게 속기 쉽다. 어떻게 해야 우리와 차원이 다른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사실이라고 한다. 그것은 100% 속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롬8:28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집에 사건이 생겼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왔다. “야 이놈 자식아, 정신 차려야지!” 이것은 열 정탐꾼의 고백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아들아, 괜찮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나는 성경을 믿는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드리게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사건이 없으면 점점 잘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가정 제단을 쌓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속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아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다.

(4)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항상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병사로서 영적인 전투 의식을 가지고 살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놓치버리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건, 문제, 발걸음, 이런저런 헤프닝 앞에서 속기 쉽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속으면 안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세력은 떠날지어다.” 즉시 떠난다. 내 마음이 바로 회복된다.

(5)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예배의 성공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따라온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비로소 조카 롯과 헤어진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비로소 다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다,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만대로 생각해 보자. 내가 요즘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면, 기도응답이 오겠는가? 전도가 되겠는가? 영원한 투자하는 삶에 관심이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지겠는가? 완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 성공에서부터 온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해야 한다. 어떤 미국의 직장인은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모범이 되었는지, 나중에 주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매일 아침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문 열기 30분 전에 모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예배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우리 삶이 예배 우선이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응답으로 선교가 되어질 것이다.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 선교가 되어지면 오래 못 갈 것이다. 예배 우선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어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면, 경제 회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것이다. 내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순간이, 부끄럽고 황당스러운 순간이 아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천명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금메달 이상의 상, 대통령 이상의 성공이 있고,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오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꿈도 비전도 바뀌게 하옵소서. 전도자로서 가장 가치있는 천명목표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도록, 예배 성공과 함께 모든 응답을 받는 중직자, 전도제자,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